

방선문과 마애석각

제주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 **백 규 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산수 유람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것 중의 하나가 바위나 누정에 제명(題名)하는 것이었는데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수려한 경관과 함께 호사가들에 의해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라산이 존재하는 제주는 조선시대 이래 제주 3읍의 수령, 관관 등의 관료와 제주출신의



사진 1 : 방선문 전경

유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제주에 유배왔던 적객(謫客)들의 마애석각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특히, 방선문은 제주읍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암절 또한 해안의 다공질 현무암과 달리 단단하고 매끄러워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마애석각이 전해지고 있다.

본란에 소개하는 방선문 마애석각은 연대와 석각 조성을 주도한 주체가 분명한 19세기까지의 석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문헌에 보이는 방선문

방선문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숙종 때 제주목사 이익태가 남긴 『지영록』에서이다. 이익태는 1695년(숙종 21) 8월 19일 한라산을 두 번째로 오르다가 일기불순으로 중간에서 하산하였다. 하산 도중 잠시 방선문에 머물면서 그 곳의 풍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두 갈래 계곡이 모여 합쳐져 북쪽으로 흐르는데 경치가 말끔하였다. 하나의 커다란 암석이 언덕에서 이어져 옆으로 누웠는데 골 입구의 가운데가 통하여 큰 구멍이 마치 문과 같았다. 진달래와 단풍 등 꽃나무들이 좌우 푸르른 벼랑에 번갈아 줄을 지었는데, 봄·가을에 놀리와 구경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이어서 현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 또한 『탐라록』에서 한라산 등정 길에 방선문을 거쳐간다. 그리고 ‘영주10경’의 하나로 그림을 그리고 7언 절구를 지어 영구상화(瀛邱賞花)의 장소로 방선문을 소개하였다.¹⁾

숙종 때의 이익태 이래로 방선문이 한라산 등정과 하산 시에 들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봄과 가을 유람에 가장 적당한 경승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를 ‘선선의 고장’이라 하고, 방선문을 그 대표적인 장소로 꼽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선문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후기에 속한다 하겠다.

1) 李源祚, 『耽羅錄』上, 辛丑(1841) 1月 2日條, ‘瀛洲十景題畫屏…廣闊幽深境不齊 就中奇絕卽山溪 春風隨入飛仙窟 躑躅花前海鳥啼 瀛邱賞花 …’.

한편 이익태는 방선문을 거암곡(擧巖谷)이라고 칭하면서 속명인 ‘들렁괴’를 한글로 병기하였다.²⁾ 이후 영조 때 제주목사 김정은 천룡곶(穿弄串)으로,³⁾ 헌종 때 제주목사 이원조는 등영구(登瀛邱)로 소개하였다.⁴⁾

거암곡이니 천룡곶이니 등영구라 불리는 방선문의 별칭이 모두 ‘들렁괴’의 음차 또는 훈차임을 알 수 있다. 곧,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방선문의 호칭보다는 속명인 ‘들렁괴’가 일반적인 호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들렁괴’가 방선문으로 병용되어 불리기 시작한 것은 정조 때 제주목사 윤득규(재임기간:1785.5~1786.4)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방선문 서쪽 천장에 횡(橫)으로 새겨져 있는 방선문 제액(題額)⁵⁾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액을 새기고 그 옆이나 아래의 암면에 방문자의 이름이나 시를 새겨놓은 방선문의 환선대와 등영구, 용연의 선유담 제액의 새김 용례와 비교하면 방선문 제액 위에 일행의 이름을 함께 새겨 넣은 윤 목사가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석각 조성 당시의 정황을 유추해 보면 더욱 확신이 선다.

올 여름 국립제주박물관의 ‘한라산’ 특별기획전 관계로 방선문 각자(刻字)를 직접 탁본할 기회가 있었다. 그냥 보기에는 비스듬한 천장의 경사면에 새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탁본을 하자니 고개며 허리를 모두 뒤로 제쳐서 작업을 해야 했다. 고역 중의 고역이었다. 초창기에 새겨진 것이라면 그런 장소에 새겨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입구 안쪽 정면에 새겨진 영조 때 홍중징 목사(재임기간:1738.10~1739.9)의 등영구보다 후대의 것임이 분명하다.

여하튼, 이러한 승지로서의 방선문은 19세기 조천리의 유림 이한우(1823~1881)가 영주 10경 중 제3경으로 품제하면서 현재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李益泰, 앞의 책, 乙亥(1695) 8월 19日條, ‘更欲登覽漢攀上峯 凌晨促行 單騎馳至中臺 陰雲四塞 還下擧巖谷俗名 들렁괴 …’.

3) 金攸 著, 金益洙 譯, 『蘆峰文集』 卷1, 詩集, 濟州文化院, 2001, 308쪽.

4) 李源祚, 『耽羅志草本』 卷2, 濟州, 形勝條.

5) 본문에서 언급하는 題額은 바위나 절벽에 그곳의 이름을 命名하여 새겨 넣은 刻字을 뜻한다.

2. 18세기 마애석각

제주지역 磨崖石刻은 근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제주시 외도동 경계에서 발견된 岩刻畵를 제외하면 모두 글자를 새겨 넣은 刻字이며, 조선시대 석각 중 연대가 분명한 최고(最古)의 것은 1578년(선조 11) 이전에 새겨진 제주시 용연의 해서체 ‘翠屏潭(취병담)’ 각자(刻字)이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귀포시 상효동 효돈천의 ‘觀儺岩(관나암)’ 각자 이외에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마애석각은 시대적으로는 조선후기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새겨진 것들로 판단된다.

1) 판독문

조선후기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출현은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야 나타나며 개체수는 3건으로 모두 용연에 분포한다. 이후 18세기에 들어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중 방선문에 조성된 마애석각은 14건이다. 시기에 따라 원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 ① 雙溪石門/判官鄭東里/散人許運/閔廷楫/金時鎭/歲丁未八月初吉日識//月老女媧天/岩開大禹斧) 1727.8
- ② 登瀛丘/石竇呀然處/巖花無數開/花間管絃發/鸞鶴若飛來/洪重徵題/己未首夏*權世恭/己未首夏/申德涵/朴壽鳳 1739.4
- ③ 防禦使安慶運/子致範/軍官李演輔書*審藥/張鳳徵/倭學/劉廷禧*林貴春/丁志升/南得遠 1740.9-1743.3
- ④ 牧使金潤/黃奎鉉/金澈//甲子首夏 1744.4
- ⑤ 瀛洲伯尹九淵/軍官閔震/柳敏章/梁泰重/柳獻徵/張紀龍/壬申孟春 1752.1
- ⑥ 瀛洲伯金夢煒/子肅基/郁基/軍官辛一東/鄭彥佐/金得基/鄭東羽/崔倬/李宗芳/洪愼健/審藥李禧大/甲戌首夏*成漢宗/崔命祚 1754.4
- ⑦ 判官朴昌鳳/甲戌初夏 1755.4
- ⑧ 乙亥初夏/防禦使洪泰斗/軍官李問樞/崔濬文/判官安世潤 1755.4
- ⑨ 耽羅伯朴聖漢/軍官朴聖漢/趙益祥/李聖儒/姜遇周/金載赫/韓相五/審藥梁慶柔/甲午初夏十日過此1774.4.10

6) 판독한 원문 끝에 마애석각이 조성된 시기를 표기하였다. 19세기 마애석각의 판독원문 표기도 이와 같다.

- ⑩ 喚仙臺/別壑乾坤大石門日月閑莫云/無特地眞箇有神山花老三/春色岩蒼太古顏
 憂然鳴鶴/至知是在仙間己亥春金永綬/己亥季春/子樂圓/尹進五/朴宗玉 1779.3
- ⑪ 入洞山如揖嵌室危欲墜/瀛丘我亦仙玉斧鑿何年/玉溪逍遙生韓昌裕 1779.3
- ⑫ 府伯尹得達/子翎東/從子養東/冊室玄鎮澤/金 桓/軍官金述曾/尹得敦/姜文一/丙
 午四月//訪仙門 1786.4
- ⑬ 李命俊 1786.4-1788.3
- ⑭ 金鳳吉 1788.1-1790.8

2) 주요특징

18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제주지역 마애석각의 가장 큰 특징은 탐승의 자취를 시로 읊어 새긴 제영(題詠)의 등장이다. 제주 요소요소의 승경을 시로 읊고 문자로 기록한 것은 이전의 地誌나 개인문집 등 문헌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장의 벼랑이나 암면에 새겨진 제영은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그리고 그 최초의 제영이 방선문에 새겨져 있다. 영조 때 정동리 판관의 2행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시발로 하여 홍중징 목사 또한 방선문에 5언 절구를 남겼고, 정조 때 김영수 목사와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한창유 또한 시를 지어 새겼다. 이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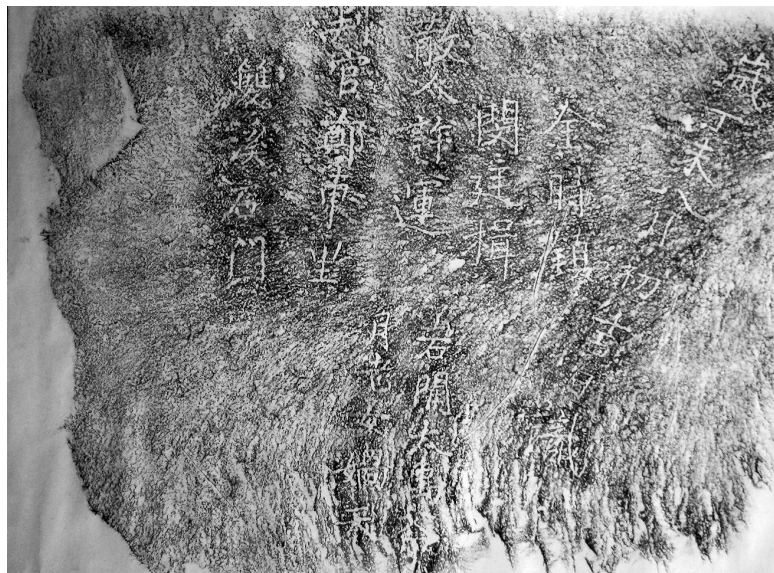


사진 2 : 정동리 판관일행 석각(탁본)

정동리 2행시(원문 ①)

月老와 女媧의 태고 적, 禹임금의 도끼로 쪼개진 바위

홍중징 5언 절구(원문 ②)

돌구멍 입 짝 벌렸고, 바위꽃 무수히 핀 곳

꽃 사이 관현 텅기면, 鸞鶴이 날아 이를 듯

김영수 5언 율시(원문 ⑩)

툭 트인 별난 골짜기에, 세월 속 한가로운 돌문

특별한 곳 없다 마오, 신선 사는 산이 있으니

꽃 지고 봄날은 가도, 바위는 창연한 빛깔

끼르륵 학울음 우는, 이 곳이 仙界인 것을

한창유 5언 절구(원문 ⑪)

골짜기에선 산도 절을 하는 듯하니

나 또한 들렁귀에선 신선이로세

무너져 내릴 듯 뺨 뚫린 굴을

옥도끼로 깎아내길 언제이더냐

방선문에 새겨진 제액(題額)은 정동리 관관의 쌍계석문(雙溪石門)을 시작으로 영조 때 홍중징 목사의 등영구, 정조 때 김영수 목사의 환선대와 윤득규 목사의 방선문으로 이어지면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방선문 이전 한자어로 된 가장 오래된 이름이 쌍계석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방선문을 방문하고 석각을 새긴 이들은 대부분 탐승 시기도 함께 새겨두었다. 14건의 석각 중 방문연월을 확인할 수 있는 간지는 八月初吉日·首夏·夏·首夏·孟春·首夏·初夏·初夏·初夏十日·季春·春·四月 등 총 12건이다. 이 중 여름이 8건, 봄이 3건, 가을이 1건 순으로 나타난다. 여름 8건 중에서도 夏라 새겨진 각자를 제외하고 初夏가 7건이다. 초하는 음력 4월로, 이때는 방문에 번성했던 참꽃 나무의 꽃이 만개할 때이다. 방선문의 이름이 어떻게 불렸든 1700년대 이래로 賞春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방선문 마애석각 중 새김 형식에 있어 특이한 경우가 보이는데, 정동리 관관 일행의 마애석각은 일반적 한문쓰기의 형식인 우에서 좌로가 아닌, 좌에서 우로 새겨져 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3. 19세기 마애석각

19세기 제주지역에 등장하는 제주지역 마애석각은 모두 45건이다. 이 가운데 방선문에 20건이 분포한다.

1) 판독문

방선문에 새겨진 19세기 마애석각을 조성시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牧使鄭觀輝 1799.12-1802.3
- ② 次壁上韻/亂石沈雲合幽花/向日開仙人不可見我/輩祗空來/韓鼎運 1807.3-1809.1
- ③ 侄義達/牧伯李顯宅/判官孫應虎/旌義盧尙熙/軍官金漢恂/權啓東/韓永履/李顯謨 1810.2-1811.6
- ④ 李必述子斗南/金在浩/康(紵)/洪良(燮)/李○○/蔡○○/○○○/○○○1825.5-1827.2
- ⑤ 浦口吞紅日山肩/荷白雲清遊/宜此夕携酒且/論文/判官李義謙/戊子四月初一日 1828.4.1
- ⑥ 李源祚/子鼎湘/奉硯安命岳//丁義成/李潞夏 1841.윤3-1843.6
- ⑦ 牧使睦仁培/子裕錫/甲寅四月 日 1854.4
- ⑧ 牧使姜冕奎/堂侄鎬/軍官李始愚/李啓奕/庚申閏五月晦日題 1860.5.30
- ⑨ 線通花徑轉/斧鑿石門開/已透參同秘/休嫌俗子來/己巳四月吉日/牧使趙義純 1869.4.1
- ⑩ 參判崔益鉉/李基璫來/乙亥 1875 -19세기말
- ⑪ 朴寅陽稼樊/耽羅命吏朴善陽/弟五衛將泰陽/子勝台/勝斗/軍官族人朴宗(誼)五衛將朴來敏/判官金東杓/本州進士金亮洙書/中房金仁宅/李昌基/壬午三月日 1882.3
- ⑫ 判官 高景峻 1883.8-1885.4
- ⑬ 知州沈賢澤/開國四百九十三年/朴箕壽/甲申四月日 1884.4
- ⑭ 謫客尹相和/甲申五月日 1884.5
- ⑮ 搜雲契/姜郁彬/韓禎裕/愼栽揆/金庸圭/金炳鎬/金啓柄/姜斗勳/姜遇伯/吳圭瀛/李能白/李鍊百/李源弼/文斗南/姜師鎬/朴南岳/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潤五月

初五日 1884.윤5

- ①⑥ 風詠錄/金鍾運/朴章鉉/玄商休/金性久/金應璜/俞晟煥/文斗燦/朴景亮/洪淳坤/
文圭三/金謙集/梁錫圭/姜宗杓/金奉河/愼奎錫/金寅錫/金履珩/姜錫祚/李儀保
/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閏五月初五日 辛巳春/金永權洪義杓/改修 1884.윤5
※1941.春 改修
- ①⑦ 牧使洪圭/軍官申鶴熙/李教晚/尹泳毅/乙酉//東帆洪埈 1885
- ①⑧ 牧使沈遠澤/軍官朴永漢/沈相俊/朴章浩/丁亥四月二十日/又西沈樂中 1887.4.
- ①⑨ 牧使宋龜浩/子榮稷/冊室宋鍾奭/軍官宋元浩/尹斗成/皮秉奎/中房李仁典/己丑
四月日1889.4
- ②⑩ 判官康仁鎬 1889.4

내용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는 18세기 마애석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영은 한정운 목사와 이의겸 판관, 조희순 목사가 5언 절구 1수씩을 남기고 있다. 차례대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한정운 5언 절구(원문 ②)

넋려진 바위에 구름이 깊고, 그윽한 꽃은 해를 향하였는데
신선을 찾아도 볼 수 없으니, 우리들 공연히 온 것 같으니

이의겸 5언 절구(원문 ⑤)

포구는 붉어진 해를 삼키고, 산 어깨는 흰 구름 짙어졌으니,
이 저녁 고상히 놀아 보고저, 술동이 들고 와서 글을 논하네

조희순 5언 절구(원문 ⑨)

꽃 사이 실낱 같은 오솔길 꼬불, 도끼로 깎아낸 듯 열려진 석문
參同契 비결 이미 터득했으니, 속세에서 왔다고 꺼리지 마오

방문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각자는 四月初一日・四月・閏五月晦日・四月日・閏五月晦日・四月吉日・三月日・四月日・五月日・潤五月初五日・閏五月初五日・春・四月二十日・四月日 등 총 14건이 확인되며 이는 여름 12건, 봄이 2건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도 방선문이 4~5월 상춘(賞春)의 장소로 여전히 애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특징

방문연도 표기와 관련하여 19세기 마애석각 중 방선문에 새겨진 심현택 목사 제명과 수운계와 풍영록 회원의 제명은 특이한 사례이다.

제주지역 마애석각에서 방문일자가 새겨진 경우 심현택 목사 제명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방문한 해를 나타내는 간지와 월일만을 새겨놓았다. 그런데 1884년 4월 방선문을 방문한 심현택 목사의 제명에는 甲申이라는 간지 앞에 ‘開國四百九十三年’이라는 조선개국연호를 새겨 놓았다. 다음 달의 수운계와 풍영록의 석각 또한 조선개국연호를 새겨놓았다.



사진 3 : 풍영록 회원명단 석각

그런데, 공식적인 개국 연호의 사용은 갑오개혁 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즉, 건국 이후 사용하여 온 명·청 등의 중국연호 대신 개국년을 원년으로 기산하여 갑오개혁 당년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산정함으로써 청나라의 연호인 광서(光緒)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연호는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개국 505년 1월 1일로 하고, 建陽을 새 연호로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다.

심현택 등의 석각에는 조선개국 연호 사용 공표 이전 이미 10년이나 앞서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심현택 목사 등의 마애석각 3건에 보이는 개국연호 표기는 19세기 후반 외국 열강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조선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3건의 마애석각 외에 더 이상의 개국 연호가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심현택 목사 재임 당시 속력을 갖춘 어선에 근대화 된 어로법에 의한 일본인들의 제주도 연안 불법 어업이 극성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결국, 1884년에 한정된 조선개국 연호 표기는 1883년 재조선일본인민통상장정 체결 이후 가속화 된 일본어민의 반어반적적(半漁半賊的) 침탈에 대한 생존권적 위협을 느낀 당시 제주사회의 위기의식을 표기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문헌에 나타난 방선문과 그곳에 새겨져 있는 19세기까지의 마애석각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695년 이익태 목사에 의해 봄, 가을 나들이에 적합한 장소로 알려진 이후 1727년 정동리 관관에 의해 새겨진 쌍계석문 석각이 비로소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선문이 당대에 처음부터 선계(仙界)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라산 등반길에 거쳐 가는 장소가 상춘의 적합한 장소로 목사 등에 의해 알려지면서, 이후 그곳을 목적지로 하는 목사와 관관, 해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산수유람의 관행으로 행해지던 석각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석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곳의 방문을 주도한 이들이 누구이며 언제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감흥으로 이곳을 둘러보고 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석각이 새겨진 배경을 통해서는 당시 사회상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마애석각이 단순한 유흥의 자취가 아닌 역사적 자료로써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이유이다.

주요내용에 있어 인물의 행적은 제한된 지면의 관계로 생략하였다. 제시된 판독문은 최근의 현장조사와 함께 선행 연구자들의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새롭게 정리된 내용이다. 오류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대방의 질정을 바란다.

